막오른 여수박람회 유치전

❷ 유치신청 3개국 전력분석

개도국 지원 늘려야 표 얻는다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한국과 모로코, 폴란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10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바 있는 한국이 전철을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2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제력과 국가 공신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제140회 BIE총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여수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한국, 2차 투표 대비 연합체계 구성해야

모로코, 탕헤르 인지도 최대한 활용할 듯

폴란드, 유럽 36개 회원국과 가장 가까워

■유치경쟁국 비교

구 분	한국	모로코	폴란드
개최기간	2012. 5. 12 ~8. 12	2012. 6. 16 ~9. 16	2012. 6. 24 ~9. 24
개최도시	여수	탕헤르	브로츠와프
1인당 GDP	14,162$ ('04)	1,437$ ('04)	5,472$ ('03)
개최도시인구	32만명	55만명	70만명
주 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세계의 길, 문화의 만남, 세계의 화합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문화

◇3국 장·단점=한국의 최대 강점은 경합국 가운데 경제력과 국제 공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4천162달러, 모로코는 1천437달러, 폴란드는 5천472달러(2003년)로 각각 집계됐다. 〈표참고〉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98개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확대해 표결에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회원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엑스포 지지와 교역조건을 주고 받는 다양한 실리외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임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엑스포 개최 능력을 과시한다면 개발에 크게 뒤져있는 모로코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폴란드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988년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일본 아이치에 이어 오는 2010년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돼 있어 2012년 여수까지 동북아권에서 연속 3회 엑스포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부반응은 약점으로 꼽힌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중동의 넓은 지지를 받는 이슬람국가로 해당 권역에서 엑스포를 처음 개최한다는 상징성이 강점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문역할을 해온 개최 후보지 탕헤르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여수보다 인지도가 높고 강대국이 아랍권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최근 국제정세의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기세다.

반면 교통기반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고 경제력도 3국 가운데 가장 열세여서 개최 능력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구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국가로 EU 및 가장 많은 3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권의 지원을 받기 쉽다. 이와는 달리 국내 정세가 불안해 국가적 역량 결집 측면에서 한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연합체계 미리 구성하라=2012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2월 열리는 제142회 BIE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한 나라가 전체의 3분의 2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3위 국가 탈락 후 결선투표로 판가름난다.

따라서 3국이 벌이는 득표전 단계에서 미리 2차 투표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연합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표결 방식을 감안해 득표전 초반부터 모로코와 폴란드가 연합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원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지지 활동을 전개하되 나머지 2개 경합국과의 전통적인 외교관계 및 교역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제휴 파트너를 미리 정해 치밀한 득표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2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치 경합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최종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내달초 '쇠고기 협의' FTA 분수령

한국, "뼛조각-FTA 별개… 기술적 협의하자"

미국, '쇠고기 완전개방' 선결 조건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이 거듭 '쇠고기 완전 개방'을 FTA 선결 조건으로 거론함에따라 쇠고기가 막판 FTA 타결의 핵심 열쇠가 됐다.

농림부는 아직까지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이므로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비춰 현실적으로 '뼛조각'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FTA 타결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간 쇠고기 검역 기술적 협의가 한미 FTA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美 한국 쇠고기 시장 탈환에 '혈안'=지난 19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6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FTA를 위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5차 협상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한미 FTA 협정 내용이 좋아도 쇠고기 재개방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들과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2000년대 들어 2003년까지 줄곧 일본, 멕시코에 이어 부동의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2003년의 경우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127만t의 쇠고기 가운데 한국이 수입한 물량은 약 25만t, 전체의 2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월 수입 위생조건 합의로 어렵게 성사시킨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수㎜ 크기의 '뼛조각' 때문에 좌절되자 미국은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로 'FTA'를 꺼내든 것이다.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다음달 초 열릴 듯=우리나라 농림부는 '뼛조각' 문제와 FTA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뼛조각 논란'을 포함한 쇠고기 검역 현안은 통상전문가가 아닌 위생·검역 전문가들이 만나는 기술적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 기술적 협의가 성사될 것 같다"며 "시간상 이번달은 어렵지만 다음달에는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혀 다음달 초 기술적 협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이 FTA 협상 일정이나 미국내 여론 때문에 기술적 협의를 서두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北, 개성관광 '현대아산'과 손잡기로

관광대가 등 진통 예상

북측이 개성관광 사업자를 롯데관광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접고 당초 합의자인 현대아산과 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개성관광 사업 논의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북측과 현대아산 간의 협의는 이제 시작으로, 2005년 시범관광 당시 이견이 컸던 관광 대가 문제와 북한 핵실험 이후 보수화된 여론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개성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南 단호한 원칙에 北 입장 선회=개성관광은 북측이 2000년 8월 현대와 맺은 이른바 '경제협력에 관한 7대 합의서'에 포함된 사업이다.

하지만 북측이 갑자기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며 사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최승철 부위원장은 2005년 8월 '2005 평양오픈골프대회' 참관차 평양을 찾은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에게 개성관광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구두로 한 데 이어 9월에는 서면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롯데관광이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머뭇거리자 북측은 작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현대아산에서 롯데관광으로 변경하라고 남측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는 정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자 대안이 없다고 판단, 결국 다시 현대아산과 손을 잡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 실시까지는 난관 많아=사업자 문제가 정리되면서 개성관광을 실시할 토대는 마련됐다.

이미 2005년에 3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을 실시했고 도로 등 인프라도 갖춰져 기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관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현대아산의 판단이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개성관광사업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2005년 시범관광 당시 북측에 지급할 관광대가를 놓고 양측은 적잖은 갈등을 빚어졌는데 당시 북측은 당일관광에 1인당 150달러는 줘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미, 6자회담서 '초기조치' 협상

북미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6~18일 '베를린 회동'에서 미국이 지난 해 12월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제안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북미가 합의한 별도의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간다는 대전제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말했다. /연합뉴스

누구나 합격강의
9급 공무원 시험대비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교정직
공채 : 4월 14일
특채 : 3월~5월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중개사 전문강의 17년!!
공인 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공법:권철 ·공시법:윤철한
·민법:윤철한 ·세 법:유영
·부동산학:김범 ·법령·실무:김봉억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일 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 / 1년 회원제
오전 야간어론+오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2개월 이론종합반
오전 야간어론+기초영어 수강
◉문제풀이반(매월 1일개강)
오후문제풀이+기초영어 수강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경찰학개론	형 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 사	영 어	영 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홀짝수 주야간반 수시접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800여명 모집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정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본원출신 송은영님 96.7점
2월 1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본 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2월 1일
개설과목 :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